

‘거포 내야수’ 변우혁 “슈퍼 백업 변신해 연패로”

KIA타이거즈 선수단 을사년 출사표

TIGERS “생애 첫 한국시리즈 출전에 우승까지 이뤄냈죠. 2025년에는 슈퍼 백업으로 변신해 한 번 더 우승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지난해 KIA타이거즈의 내야 백업 1읍선으로 자리 잡으며 든든히 뒤를 받친 변우혁이 새해에는 더 발전된 모습을 꿈꾸고 있다. 올해는 최우선 백업을 넘어 슈퍼 백업으로 발돋움해 우승의 환희를 한 번 더 즐기겠다는 다짐이다.

변우혁은 최근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한국시리즈 끝나자마자 마무리 훈련을 다녀왔고, V12 타이거즈 페스타도 준비해야 해서 정말 바빴다”며 “12월에서야 잠시 여행 다녀오면서 짧은 휴식을 갖고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고 근황을 밝혔다.

지난 겨울에는 본가가 있는 청주에서 훈련에 임했던 변우혁은 이번 겨울 광주에 남아 몸을 관리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팀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며 스프링 캠프 출발 전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비시즌에는 체중이 늘기 쉬워 식단 관리와 여러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며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하고, 동성고에서 (김)도영이, (윤)도현이랑 운동을 하기도 한다. 필라테스도 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시즌 구상이 일부 변경되기도 했다. KIA는 변우혁과 김석환, 박정우, 윤도현, 김규성 등을 미국 드라이브 라인 베이스볼 센터에 파견하려 했으나 트레이닝 파트에서 피로 누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무산됐다.

변우혁은 “미국 가기 전까지 계획했던 운동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매일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배팅 훈련도 하고 있다. 주로 훈련하러 나오는 시간이 비슷한 선수들과 짝을 이룬다”고 언급했다.

거포형인 그에게 배트스피드는 필수적인 요소다. 주로 백업을 소화하고 있는 만큼 타석에 들어섰을 때 확실한 한 방을 보



지난해 1·3루 백업 우선 옵션 생애 첫 한국시리즈서도 굳건 위즈덤 가세로 코너 경쟁 가열 올해는 100경기·10홈런 목표

여준다면 더 많은 출전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변우혁은 “지난해 목표는 홈런 15개라고 말했는데 5개에 그쳤다”면서도 “이전과 비교하면 타율과 장타율, 출루율 등 유의미한 성적이다.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새 시즌의 핵심적인 목표는 100경기 출장과 두 자릿수 홈런이다. 그의 커리어 하이 기록은 2023년 세운 83경기와 7홈런이다. 지난해에는 69경기에서 5홈런을 생산했다.

변우혁은 “올해는 100경기 출장과 타율 2할 7푼 이상, 두 자릿수 홈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난해 3할 4리를 쳤다. 홈런이 많아지면 타율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제 장점은 힘”이라고 강조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다. KIA는 외인 타자로 내야수 패트릭 위즈덤을 영입하며 코너를 보강했다. 메이저리그에서 세 시즌 연속 20홈런을 기록한 강타자인 위즈덤은 주전 1루수로 활약할 전망이다. 코너 백업을 두고 변우혁과 서건창, 홍중표, 김규



KIA타이거즈 변우혁이 지난해 5월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 홈경기 3회말 2사 1·2루에서 적시 2루타를 때리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성, 황대인, 박민, 윤도현 등이 겨루는 양상이다.

변우혁은 “경기에 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일단 1루와 3루 백업 역할에 충실할 것이고 좌완 투수에 맞춰 표적 선발도 가능하다”며 “경기에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기 출전 여부가 여러 차이를 만들기에 준비를 잘해서 기회를 잡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위즈덤이 메이저리그에서 홈런도 많이 쳤고 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며 “많이 물어보고 배우려고 한다. 프로에 와서 같은 포지션에 외국인 선수가 있는 것이 처음인데 많은 걸 보고 배우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하겠다”고 덧붙였

다. 변우혁이 완벽히 새 시즌을 준비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도 있다. 지난해에도 이우성과 김도영 등 내외야에서 부상 또는 피로 누적이 발생했을 때 선발로 나서 빈자리를 메우기도 했다. 최형우의 허리 통증으로 이우성이 외야로 자리를 옮겼던 한국시리즈 4차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한국시리즈라는 큰 무대에서 처음 선발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각별했다. 올해도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어떤 상황에서는 내 할 것만 해야 한다는 걸 한 번 더 느끼기도 했다. 제 몫을 해서 팀에 도움되

는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팬들에 대한 감사함과 연고지인 광주에 대한 애정도 숨기지 않았다. 새 시즌에도 KBO 리그 10개 구단 중 뜨거운 사랑을 자랑분으로 연패 도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욕도 충만했다.

변우혁은 “한국시리즈도 대단했지만 퍼레이드와 페스타를 했던 날을 잊을 수가 없다. 광주에 대해 다시 한번 애정이 생겼고 너무나 좋은 곳”이라며 “지난해 언제 어디서든 보내주셨던 큰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됐고 잊을 수 없다. 새로운 시즌에도 그 힘으로 연패 도전을 이뤄보겠다”고 자신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공수 겸장’ 권성운, 광주FC 유니폼 입었다

측면 전 포지션서 활용 가능 이정호 감독에 맞춤형 자원



프로축구 K리그1 광주 FC가 공수를 가리지 않고 측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권성운을 품었다.

광주FC는 권성운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FC서울 U-15(오산중)와 U-18(오산고)를 나온 그는 U-14 대표팀과 U-17 대표팀, U-20 대표팀을 두루 거치며 일찌감치 재능을 인정받아 프로에 직행한 유망 자원이다.

프로 무대 입성 첫해인 2020년 FC서울 소속으로 박혁순 감독 대행과 이원준 감독 대행의 선택을 받으며 국내와 아시아 무대에서 모두 데뷔에 성공한 권성운은 2021년과 2022년 박진섭 감독과 안익수 감독 아래에서도 22세 이하 자원으로 쓸쓸한 활약을 펼쳤다.



광주FC 권성운.

권성운은 K리그1에서 세 시즌 동안 24경기를 소화했고 2023년에는 K3리그 대전코레일FC로 임대된 뒤 2024년

K리그2 부산아이파크로 이적, 새로운 도전에 나서 22경기에서 1득점과 4도움을 기록했다.

그는 공을 소유하는 능력과 수비의 압박을 벗겨내는 기교가 탁월해 좋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다.

특히 순간 스피드와 개인기가 뛰어나 돌파를 통해 상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어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으로도 배치 가능하다.

권성운의 합류는 이정호 감독의 전술 구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감독은 위치를 가리지 않는 선수를 가장 선호한다. 권성운은 공수와 좌우를 가리지 않는 만큼 광주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권성운은 구단을 통해 “광주FC는 조직력이 뛰어나고 확실한 색깔을 가진 팀”이라며 “이런 팀에 합류할 수 있어 기쁘다. 팬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규빈 기자

‘연패 도전’ KIA, 서건창 잡으며 FA 시장 사실상 철수

1+1년 총액 5억원

올해 KBO 리그 2연패에 도전하는 KIA타이거즈가 내야수 서건창(사진)과 자유 계약(FA)을 체결하며 이적 시장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KIA는 서건창과 계약금 1억원과 연봉 2억4000만원, 옵션 1억6000만원 등 1+1년 총액 5억원에 FA 계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KIA는 서건창과 투수 임기영, 장현식(LG)까지 내부 FA가 모두 이적 또는 잔류를 마쳤다.

2008년 신고 선수로 LG트윈스에 입단해 1경기 출전에 그치며 2년 만에 방출된 뒤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해결하고 2010년 넥센하이로즈 유니폼을 입은 그는 신고 선수 신화와 방출생 신화를 동시에 썼다.

서건창은 KBO 리그 14시즌 통산 1350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8(4800타



수 1428안타), 40홈런, 232도루, 517타점, 853득점을 기록했고 2012시즌 신인왕과 2014시즌 MVP를 비롯해 세 차례 골든글러브와 한 차례 타율상, 득점상, 안타상 등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또 KIA에 새 동지를 든 직후인 지난 2024시즌에는 94경기에서 타율 0.310(203타수 63안타), 1홈런, 3도루, 26타점, 40득점으로 내야의 뒤를 받치며 열두 번째 우승에 기여했다.

서건창은 구단을 통해 “올해도 고향 팀에서 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고참 선수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점이 구단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선수들과 힘을 합쳐 다시 광주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규빈 기자